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

정명규(경희대학교 박사) · 이은재(경희대학교 박사) · 박신재(국민대학교 조교수)*

국문초록

본 논문은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 중재에 관한 긍정심리자본의 의미와 역할, 활용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 제공을 목적으로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그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설정된 구체적인 연구목적의 성취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2023년 기준 학생(고교, 대학) 태권도 격파 선수를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스노우볼(snowball sampling) 표집을 이용하여 표본을 수집하였고, 이후 응답경향성에 근거한 검수과정을 통해 선정된 최종 398부를 대상으로 SPSS 28.0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과 AMOS 21.0(확인적 요인분석,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다집단 분석)을 이용하여 연구목적 성취를 위한 관련 분석을 시행하였다. 도출된 검증결과를 기초로 본문에서는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유의한 영향력과 더불어 선수개인의 주종목에 따라 긍정심리자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후 긍정심리자본이 긍정적인 발달자산의 하나로서 경험이나 학습 등을 통해 축적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 제고를 위해 태권도 격파경기 및 선수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긍정심리자본, 경쟁상태불안, 태권도 격파

* muhando@kookmin.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스포츠 경기현장에서 경쟁상태불안은 대표적인 연구주제의 하나이다. 경쟁상태불안(Competitive state anxiety)이란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을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우려나 긴장감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경향을 의미한다(박지수, 장덕선, 2022; 임신자, 정명규, 전민우, 2015). 스포츠 상황에서 경쟁상태불안이 높은 선수는 경쟁이라는 상황을 보다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결국 운동몰입 및 경기력 저하, 운동스트레스 증가 또는 탈진경험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강상욱, 이도홍, 권효정, 2022; 김현태, 2021; 박지수, 장덕선, 2022; 이계행, 최연호, 2021; 이준희, 신연지, 2018; 임신자 등, 2015)에 노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다각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다.

경쟁상태불안이 가진 운동선수들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특징적인 역할을 기초로 볼 때, 최근 태권도의 새로운 경기종목 중에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 격파경기에 있어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특히, 태권도 격파경기가 제도권에서 공인된 경기종목으로 시작된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출전자 등을 통해 추측할 수 있듯이 대학입시, 기존 시범단원들의 유입 등으로 인해 급성장하여 활성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심리적 대처전략에 관한 논의는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에 관한 심리적 대처전략으로서 긍정심리자본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 번의 실수로 경기 승패가 결정된다는 태권도 격파경기 특유의 경기 환경 속에서 격파선수들은

완벽한 기술 수행을 위해 동일한 기술을 수없이 반복 훈련한다. 그리고 이때 훈련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 경험이 개인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고, 나아가 경쟁적인 스포츠 상황에 대한 위협적인 인식과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패와 좌절, 고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심리자본의 중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것이며, 이에 실증적인 측면에서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긍정심리자본(PPC,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이란 성공과 성취를 위한 개인의 복합적인 긍정적 심리상태를 의미하는 긍정심리학의 핵심 개념의 하나이다(임덕순, 이양주, 2021; Luthans, 2002a; Luthans, Avolio, Avey, & Norman, 2007). 그리고 이는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의 개념으로 구분되며, 개인의 다양한 불안에 대한 대처전략으로서 긍정심리자본의 역할 규명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실증적인 측면에서 경쟁상태불안에 관한 심리적 대처전략으로서 작용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임덕순과 이양주(2021)는 고등학교 복싱선수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를 분석했고, 긍정심리자본이 높을수록 개인의 경쟁상태불안 수준이 감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취업불안(지명원, 이주연, 2022)이나 발표불안(이만제, 2018) 중재에 대한 이전연구들 또한 긍정심리자본이 불안에 대한 대표적 중재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 밖에도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과 유사한 개념인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상태희망들을 대상으로 경쟁불안과의 관련성에 관한 이전 연구들은 제시된 내용을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지지하고 있다(곽동훈, 이석준, 2021; 문예린, 장덕선, 2022; 박미리, 박영환, 최옥진, 2018; 홍준희, 2000).

하지만 태권도 격파경기가 비교적 최근 경기화 및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 실증적인 측면에서 격파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를 규명한 이전 연구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더불

어 한국 스포츠 경기현장에서 수행된 그간의 관련 연구들이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 간의 관계규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실제적으로 태권도 격파현장에서 적용 및 활용가능한 기초자료 역시 부족한 현실이다.

이런 내용에서 본문에서는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 중재전략으로서 긍정심리자본이 갖는 의미와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개인의 심리적 요소들 간의 관계가 연구대상이 가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그 관계의 수준과 유의성이 다각적이고 다차원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강현우, 장세용, 2014; 권형일, 구태연, 2022; 박소영, 정순돌, 2021; 장세용, 배환성, 지준철, 2020; 정명규, 2020; 정태검, 정명규, 2021), 태권도 격파선수들이 가진 인구학적 측면의 대표적 특성인 성별과 소속, 그리고 주종목 등을 중심으로 다집단 분석을 사용하여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구체적인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집단 분석(MGA, multi-group analysis)이란 구조방정식 모형분석(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규명된 경로계수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연구법이다(김경섭, 정명규, 2021; 우종필, 2016). 즉, 다집단 분석은 연구모델 내 설정된 경로의 유의성뿐만 아니라 통계적 측면에서 집단 간 차이 규명도 포함하는 연구방법을 말하며, 주로 모집단으로부터 구분된 서로 다른 집단들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김경섭, 정명규, 2021; 우종필, 2016). 그리고 다집단 분석이 지닌 분석적 의미를 근거로 할 때, 다집단 분석을 통해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에 대한 인구학적 특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관련된 이전 연구들과는 구분되는 독창성 속에서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 중재에 관한 긍정심리자본의 의미와 역할, 활용에 관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서술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

안 증재에 관한 긍정심리자본의 의미와 역할, 활용에 관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 및 인구학적(성별, 소속, 주종목) 특성의 조절효과 검증을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목적 성취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이 H1~H4를 설정하였다.

H1.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H2.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성별에 따라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 간 관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H3.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소속에 따라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 간 관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H4.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주 종목에 따라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 간 관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설정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격파선수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여 온라인 설문 링크 Google Forms를 활용한 스노우볼(Snowball) 표집을 통해 2023년 7월 ~ 8월까지 약 2개월간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특정패턴 및 무응답, 함정문항 등에 대한 응답 경향성을 토대로 연구자들에 의해 자료의 적절성이 높다고 평가된 최종 398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먼저, 성별에서 남자

337명(84.7%), 여자 61명(15.3%)으로 나타났다. 다음 소속에서 고교 138명(34.7%), 대학 260명(65.3%)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주종목에서 수직격파 97명(24.4%), 수평격파 96명(24.1%), 체공도약격파 99명(24.9%), 딛고격파 106명(26.4%)으로 나타났다<표 1>.

표 1. 분석대상 인구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자	337	84.7
	여자	61	15.3
소속	고교	138	34.7
	대학	260	65.3
주종목	수직격파	97	24.4
	수평격파	96	24.1
	체공도약격파	99	24.9
	딛고격파	106	26.4
전체		398	100.0

2. 검사도구

연구목적의 성취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들을 통해 타당성 및 신뢰성이 이미 검토된 설문지를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본문에서 사용된 검사도구 설문지 출처 및 구성에 대한 상세 설명으로, 먼저 긍정심리자본 문항은 Luthans 등(2007)과 임태홍(2013)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자기효능감, 낙관주의, 희망, 회복탄력성의 4개 요인 18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다음 경쟁상태불안 문항은 Martens, Vealey와 Burton(1990), 양은석과 김진환(2010), 정명규(2020)의 연구에서 사용된 경쟁상태불안(CSAI-2) 척도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여 경쟁상태불안 단일 요인 7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사용된 척도 내 각각의 문항은 태권도 격파지도자 및 스포츠심리학 박사 3인을 통해 내용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인구학적 특성을 제외한 각각의 문항은 Likert

7점 척도로 설정되었다.

3. 통계처리방법

이 연구에서는 SPSS v28.0과 AMOS v21.0(IBM, Chicago, Illinois)을 사용하여 아래의 분석과정을 통해 연구목적에 성취하고자 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이 지닌 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검사도구 설문지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에 입각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모델 분석을 시행하였다. 셋째, 검사도구 설문지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넷째, 단일차원성이 입증된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과 경쟁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산출하였다. 다섯째, 교차타당성 확보를 위한 측정동일성을 검토를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ple 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여섯째,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설정된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과 다집단 분석을 시행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타당성 및 신뢰성

측정모형에 입각한 CFA 모델과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검사도구로 사용된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평가하였다<표 2>. 분석결과, 미국심리학회(APA)가 제안하는 모형 적합도를 충족하는 검정지수(CFI= .952, TLI= .946, SRMR=.0287)와 AVE .5이상(.605 ~ .698), CR .7이상(.862 ~ .942), α .7이상(.938 ~ .975)의 측정치를 확인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집중타당성과 신뢰성이 충족되었음

을 평가하였다(배병렬, 2017; Garrido, Abad, & Ponsoda, 2016). 더불어 <표 3>에서와 같이 상관계수 최대 .712 의 제곱(.507) 보다 AVE 지수 최소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판별타당성 또한 충족되었음을 평가하였다 (Anderson & Gerbing, 1988; Fornell & Larcker, 1981).

표 2. 타당도 및 신뢰도 결과

Factor	Item	B	<i>t</i>	β	α	AVE	CR
자기 효능감	ppc1	1		.884			
	ppc2	.969	25.074	.871			
	ppc3	1.034	28.351	.919	.954	.689	.917
	ppc4	1.012	28.026	.915			
	ppc5	1.027	27.126	.902			
낙관주의	ppc6	1		.846			
	ppc7	1.033	22.314	.860			
	ppc8	1.127	25.466	.923	.946	.605	.884
	ppc9	1.080	23.703	.889			
	ppc10	1.099	23.848	.892			
희망	ppc11	1		.895			
	ppc12	.926	28.091	.904			
	ppc13	.930	26.131	.878	.953	.636	.897
	ppc14	.944	28.668	.912			
	ppc15	.971	27.110	.891			
회복 탄력성	ppc16	1		.925			
	ppc17	1	31.306	.921	.938	.675	.862
	ppc18	.979	29.069	.896			
경쟁 상태 불안	csa1	1		.924			
	csa2	1.078	34.596	.932			
	csa3	1.080	32.912	.919			
	csa4	1.036	34.644	.933	.975	.698	.942
	csa5	1.071	32.421	.915			
	csa6	1.043	35.059	.936			
	csa7	1.028	30.016	.892			
CMIN/df= 870.206/265, CFI= .952, TLI= .946, SRMR= .0287							

2. 상관관계

피어슨의 상관계수 산출에 근거하여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과 경쟁상태불안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표 3). 검증 결과, 모든 구성요인들 간 상관계수가 다중공선성의 일반적 검정기준 .8 아래인 -.697 ~ .712 수준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음이 규명되었다($p < .01$).

표 3. 상관분석 결과

	a	b	c	d	e
a. 자기효능감	1				
b. 낙관주의	.712**	1			
c. 희망	.680**	.704**	1		
d. 회복탄력성	.710**	.670**	.698**	1	
e. 경쟁상태불안	-.684**	-.620**	-.657**	-.697**	1

note1. ** $p < .01$

3. 교차타당성

연구가설 검증에 관한 사전절차로 교차타당성 확보를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5단계의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표 4). 이때 김경섭과 정명규(2021), 이규동, 이지향과 장세용(2019) 등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1단계인 비제약 형태동일성(unconstrained) 모델과 2단계 요인부하량(constrained) 제약모델 간의 χ^2 비교를 통해 측정동일성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검증결과로서, 비제약 형태동일성 모델을 기준으로 성별의 요인부하량 제약모델($\Delta\chi^2(20) = 19.780 < 31.410$)과 직위의 요인부하량 제약모델($\Delta\chi^2(20) = 29.184 < 31.410$), 그리고 주종목의 요인부하량 제약모델($\Delta\chi^2(60) = 51.014 < 79.082$)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교차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추정하였다.

표 4. MG CFA 모델 분석결과

		$\chi^2(df)$	TLI	CFI	RMSEA	$\Delta\chi^2(df)$
성별	free	1414.041(530)	.923	.932	.065	19.780(20)
	λ	1433.821(550)	.925	.932	.064	
소속	free	1134.937(530)	.944	.950	.054	29.184(20)
	λ	1164.121(550)	.945	.949	.053	
주	free	1896.266(1060)	.922	.931	.045	51.014(60)
종목	λ	1947.280(1120)	.927	.932	.043	

note1. 자유도(df)가 20과 60 일 때, 유의수준 .05에서의
각각의 기각 기준치는 31.410과 79.082 임

4.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성별, 소속, 주 종목 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밝히기 위해 본문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및 다집단 분석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표 5>.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설정된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보편적 검정기준을 충족하는 CFI= .936, TLI= .919, SRMR= .0270 수준으로 나타났다(배병렬, 2017; Garrido et al., 2016). 모형 적합도 검토 결과를 기초로 이후 수행된 연구가설 검증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경로		B	SE	β	t			
긍정심리자본 -> 경쟁상태불안		-1.037	.058	-.810	-17.808			
CMIN/df= 390.400/43, CFI= .936, TLI= .919, SRMR= .0270								
	Standardized Regression Weights							
	성별		소속		주종목			
	a	b	c	d	e	f	g	h
a.남자	-.833							
b.여자	(.620)	-.667						
c.고교			-.830					
d.대학			(-.954)	-.745				
e.수직격파					-.733			
f.수평격파					(1.737)	-.863		
g.체공도약					(-.174)	(1.344)	-.676	
h.딛고격파					(2.678)	(-1.098)	(2.232)	-.832

note1. () 내의 값은 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값임

첫째,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검증에 앞서 시행된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에 관한 H1을 검증한 결과, 경쟁상태불안에 대한 긍정심리자본 경로계수($\beta = -.810$, $t = -17.808$, $p < .001$)의 유의성이 확인되어 채택되었다. 둘째,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성별(남자, 여자)에 따른 조절효과를 밝히기 위해 설정된 H2를 검증한 결과, 경쟁상태불안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이 남자($\beta = -.833$, $p < .001$), 여자($\beta = -.667$, $p < .001$)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유의성(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620)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셋째,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소속(고교, 대학)에 따른 조절효과를 밝히기 위해 설정된 H3를 검증한 결과, 경쟁상태불안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이 고교($\beta = -.830$, $p < .001$), 대학($\beta = -.745$, $p < .001$)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두 집단 간의 통계적 유의성(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954)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넷째,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주종목(수직격파, 수평격파, 체공도약, 딛고격파)에 따른 조절효과를 밝히기 위해 설정된 H4를 검증한 결과, 경쟁상태불안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영향력이 수직격파($\beta =$

-0.733, $p < .001$), 수평격파($\beta = -.863$, $p < .001$), 채공도약격파($\beta = -.676$, $p < .001$), 딥고격파($\beta = -.832$, $p < .001$) 서로 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때 딥고격파를 기준으로 수직격파(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2.678) 및 채공도약격파(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2.232)에서 통계적 측면의 유의성이 확인되어 H4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IV. 논의

이 논문은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 증재에 관한 긍정심리자본의 의미와 역할, 활용에 관한 다양한 시사점 제공에 구체적인 연구목적이 있다. 설정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격파경기현장에서 선수들의 대표적인 인구학적 특성이라 판단되는 성별, 소속, 주종목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 관계의 차이를 검증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기초로 아래와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 관계에 관한 H1은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이 그들의 경쟁상태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검증되어 채택되었다. 둘째,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에 관한 H2는 남자와 여자 간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셋째,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소속의 조절효과에 관한 H3은 고교와 대학 간 영향력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넷째,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에서 주종목의 조절효과에 관한 H4는 딥고격파를 기준으로 수직격파와 채공도약격파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도출된 결과는 태권도 격파선수들이 경기현장에서 경험하는 대표적인 부정적 정서의 하나인 경쟁상태불안을 증재하는 데 있어 긍정심리자본이 유의미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때 그 효과성은 선수개인의 주종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태권도 격파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 간의 관계규명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규명된 결과는 대상이 가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개인의 심리적 요소들 간의 관계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강현우, 장세용, 2014; 권형일, 구태연, 2022; 박소영, 정순돌, 2021; 장세용 등, 2020; 정명규, 2020; 정태걸, 정명규, 2021), 개인의 불안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유효성 및 긍정심리자본 구성요인의 유사개념인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상태희망과 경쟁불안 간의 인과관계를 밝힌 이전연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지되고 있다(곽동훈, 이석준, 2021; 문예린, 장덕선, 2022; 박미리 등, 2018; 이만재, 2018; 임덕순, 이양주, 2021; 지명원, 이주연, 2022; 홍준희, 2000).

긍정심리자본이 높은 선수들의 경우, 보편적으로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 선수개인에게 주어진 과제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보다 나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박태운, 김문중, 2019; 소영호, 2022; 이아름, 이윤주, 2022; 이효영, 2018; Luthans et al., 2007;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14). 긍정심리자본 수준에 따른 이와 같은 결과는 선수개인이 훈련 및 경기상황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긍정심리자본이 경쟁상태불안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긍정적인 발달 자산의 하나로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김정수, 김현주, 2017; 소영호, 2022; Duckworth, 2016; Luthans, 2002b) 긍정심리자본의 특성에서 타 종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성 높은 기술 수행에 대한 낙관성과 희망, 그리고 고난이도 기술성취에 따른 자기효능감, 기술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하는 회복탄력성 등을 경험하고 증진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딥고격파와 수직격파 및 체공도약격파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하여 보면,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과 관련하여 긍정심리자본

은 그에 대한 주효한 심리적 대처전략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이때 긍정심리자본이 가진 효과성은 긍정심리자본의 학습에 관한 주종목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선수개인이 주로 경기에 참여하고 훈련하고 있는 종목별 특성에 따라 긍정심리자본 수준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경쟁상태불안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태권도 격파경기 현장에서는 선수개인의 경쟁상태불안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유효성을 바탕으로 선수개인의 자기효능감, 낙관성, 희망, 회복탄력성과 같은 긍정적인 심리자본들을 증진시키기 위해 격파경기 및 선수개인의 특성에 맞는 중재전략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 중재에 관한 긍정심리자본의 의미와 역할, 활용에 관한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 및 인구학적(성별, 소속, 주종목) 특성에 따른 차이를 규명한 연구이다. 연구를 통해 본문에서는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에 대한 긍정심리자본의 유의한 영향력과 더불어 선수개인의 주종목에 따라 긍정심리자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학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후 긍정심리자본이 긍정적인 발달 자산의 하나로서 경험이나 학습 등을 통해 축적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격파선수들의 긍정심리자본 제고를 위해 태권도 격파경기 및 선수개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하여 관련된 다양한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갖는다. 이에 도출된 결과에 대한 보다 일관된 근거들의 확보 및 이를 통한 실천적 중재 전략 마련에 관한 추가적인 접근의 후속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마지막으로 연구가 가진 한계점과 제한점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특정 시점에 관한 횡단적 연구설계로 수행되었다는 점으로 인해 태권도 격파선수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수행될 연구에서는 종단적 연구설계 등을 통해 보다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연구가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 자료를 토대로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인터뷰, 또는 참여관찰 등과 같은 질적 자료에 근거한 후속연구들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긍정심리자본과 경쟁상태불안의 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상욱, 이도홍, 권효정(2022). 청소년 골프선수의 실패공포, 경쟁상태불안과 운동 몰입 간의 구조관계 검증.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7(1), 235-247.
- 강현우, 장세용(2014). 청소년 축구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운동몰입의 관계 : 배경 변인 간 다집단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5(1), 101-113.
- 곽동훈, 이석준(2021). 회복탄력성과 경쟁불안 및 번아웃의 관계 : 고등학교 태권도 선수들을 대상으로.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2(3), 91-108.
- 권형일, 구태연(2022). 프로스포츠 선수의 학교폭력 사건이 스포츠팬의 향후 관람 의도에 미치는 영향: 팀동일시와 스포츠선수 성별의 조절효과. **한국체육학회지**, 61(1), 221-235.
- 김경섭, 정명규(2021). 태권도장 지도자의 회복탄력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조절효과.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2(4), 101-119.
- 김정수, 김현주(2017). 유소년 축구선수의 긍정심리자본 개념구조. **한국스포츠심리**

학회지, 28(3), 13-24.

김현태(2021). 엘리트 유도선수의 과훈련인식, 경쟁상태불안, 탈진의 관계. **한국스포츠허리학회지**, 19(3), 619-629.

문예린, 장덕선(2021). 근대5종 중,고등학교 선수들의 낙관성이 상태불안에 미치는 영향: 수용행동의 매개효과. **한국융합학회지**, 11(8), 1-18.

박미리, 박영환, 최옥진(2018). 세팍타크로 선수의 자기효능감이 경쟁불안과 경기수행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6(1), 619-628.

박소영, 정순돌(2021). 중고령자의 신체적 건강과 우울 증상의 관계에서 고립감의 매개효과: 성별 및 연령 집단 간 다집단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9-32.

박지수, 장덕선(2022). 댄스스포츠 전문선수들의 경쟁상태불안이 운동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20(2), 603-615.

박태운, 김문중(2019). 긍정심리자본이 혁신행동과 직무성취에 미치는 영향 : 조직지원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3(5), 43-76.

배병렬(2017). **Amos 24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 청람.

소영호(2022). 프로골프선수의 그릿 긍정심리자본 선수지속의도 및 은퇴의도의 관계. **골프연구**, 16(3), 15-30.

양은석, 김진환(2010). CSAI-2를 이용한 태권도 경쟁상태불안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1(1), 69-84.

우종필(2016). **우종필교수의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

이계행, 최연호(2021). 대학 태권도 선수가 지각한 실수인식과 경쟁상태불안 및 인지된 경기력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3), 157-168.

이규동, 이지향, 장세용(2019). 태권도 선수들의 심판 판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배경변인의 조절효과 검증. **무예연구**, 13(4), 175-193.

이만재(2018). 대학생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발표 불안감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화법연구**, 39, 33-64.

이아름, 이윤주(2022). 중고등학생 축구선수를 위한 긍정심리자본 향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9(2), 159-185.

이준희, 신연지(2018). 운동상해 경험에 따른 대학운동선수의 경쟁불안상태가 운동

- 스트레스 및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2), 295-304.
- 이효영(2018). 긍정심리자본이 평생학습 참여성과에 미치는 영향: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9(3), 198-209.
- 임덕순, 이양주(2021). 고등학교 복싱선수들의 심판판정인식과 긍정심리자본, 경쟁상태불안의 관계. **대한무도학회지**, 23(3), 53-66.
- 임신자, 정명규, 전민우(2015). 태권도 품새 선수의 운동스트레스가 경쟁 상태불안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9(1), 45-58.
- 임태홍(2013). **운동이 긍정심리자본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장세용, 배환성, 지준철(2020). 규칙적인 무도수련 참여 대학생들의 그림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배경변인의 조절효과. **한국스포츠학회지**, 18(2), 355-364.
- 정명규(2020). **태권도 경기력 결정 심리요인 효과성에 대한 다집단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태겸, 정명규(2021). 대학 태권도 선수들의 회복탄력성, 운동만족의 관계에서 경기종목의 조절효과. **대한무도학회지**, 23(4), 45-58.
- 지명원, 이주연(2022). 취업준비 대학생의 전공만족과 취업불안의 관계에서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9(2), 183-196.
- 홍준희(2000). 상태희망이 경쟁상태불안의 방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1(1), 75-90.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Duckworth, A. L.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Y, United States of America : Scribner.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Garrido, L. E., Abad, F. J., & Ponsoda, V. (2016). Are fit indices really fit to estim

ate the number of factors with categorical variables? Some cautionary finding via Monte Carlo simulation. *Psychological Methods*, 2(1), 93-111.

- Luthans, F. (2002a).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 Developing and managing psychological strengths.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6(1), 57-72.
- Luthans, F. (2002b). The need for and meaning of positive organizational behavio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3, 695-706.
- Luthans, F., Avolio, B. J., Avey, J. B., & Norman, S. M. (2007).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Personnel Psychology*, 60, 541-572.
- Martens, R., Vealey, R. S., & Burton, D. (1990). *Competitive anxiety in sport*. IL: Human Kinetics.
-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2014). *Positive psychology : An introduction*. In *Flow and the foundations of positive psychology*. Springer, Dordrecht.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ompetitive State Anxiety in Taekwondo Breaking Athletes by Demographic Characteristics

Jung, Myung-Kyu · Lee, Eun-Jae(Kyunghee Univ.) · Park, Shin-jae(Kookmin Univ)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PPC(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ompetitive state anxiety among taekwondo breaking athletes, consideri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primary objective is to offer insights into the meaning, role, and utilization of PPC in mediating competitive state anxiety in the athletes. To fulfill our research goals, we employed a snowball sampling technique to recruit a sample of TKD breaking athletes from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resulting in a final dataset comprising 398 participants following a rigorous screening proces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tilizing SPSS 28.0 and AMOS 21.0, encompassing a range of statistical method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FA,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MG-CFA, SEM, and MGA. The research hypotheses were substantiated, revealing that PPC exerts a significant influence on competitive state anxiety in the athletes. Furthermore, our findings indicated that the efficacy of PPC may differ depending on the primary sport of individual athletes. These findings have significant academic implications. They underscore the notion that PPC can be cultivated and fortified through experiential learning, thereby representing a vital facet of positive developmental assets. Consequently, our study advocates for tailored efforts aimed at harnessing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in alignment with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the sport and the unique profiles of the athletes involved.

Key words: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competitive state anxiety, taekwondo breaking

논문투고일 : 2023.09.30

심사일 : 2023.10.25

심사완료일 : 2023.11.06